

# 다니엘서 - 제81번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역사수정주의 폭로: '상번제'를 둘러싼 논쟁 검토

Jeff Pippenger

2024-02-14

원인에서 결과로 추론하는 일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1888년 총회와 관련된 정황과 인물들에 관해 권위자인 양 단정적으로 떠드는 라오디게아적 재림교도 역사가자들이 그랬듯, 결과를 잘못 정의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영감받은 주석은 그 사건을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반복된 것으로 규정하는데, 그 반역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라는 심판이 내린 데서 비롯되었다. 그와 동일한 심판이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 선고되어 있었다.

그 반역에는 비밀스러운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단힌 문 뒤에서 벌이는 계획과 반역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극도로 라오디게아적인 눈멀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 장막에 숨어 계락을 꾸미고 모세를 거슬러 반역을 퍼뜨렸던 것처럼, 1888년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 집의 단힌 문 뒤에 숨어 화잇 자매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선택된 사자들을 대적할 음모를 꾸몄다. 그때부터 화잇 자매와 존스, 와그너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에스겔 8장에 묘사된 것처럼 재림 운동의 네 세대는 반역에서 점차 성장해 왔다. 물리적 성전과 인간이라는 성전 안의 '상상의 방들'에는 악한 상상들이 깊이 자리잡았고, 백성을 보호하도록 세워진 원로들에게 강신술이 스며들었다. 1888년에 이르기까지 그 원로들은 성경의 권위에 비방을 퍼붓고 이어서 예언의 신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1884년에는 공개적인 이상이 중단되었다. 켈로그의 범신론적 강신술은 1888년에 앞선 역사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1888년은 둘째 세대의 도래를 가리킨다. 재림교 역사가들은 그 모임에서 드러난 반역에 대한 실제 역사적 증언을 기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영감에 따르면 하늘의 감찰자들은 '모든 말을 듣고 기록'하여 그 '말들을 하늘의 책들에' 남겼다.

에스겔의 '환상의 은밀한 방들'이 상징하는 반역은 참된 토대에 대한 공격을 의미했다. 그것은 여선지자와 택함받은 사자들에 대한 공격을 뜻했으며, 또한 심령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표징이었다. 그 세대에는 다음의 중대한 공격이 사탄에 의해 윌리엄 밀러의 토대들의 바로 그 근간을 향해 감행될 것이었다.

밀러는 다니엘 8장 13절의 두 '황폐케 하는' 권세가 먼저 이교주의, 그 다음으로 교황주의를 가리킨다는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모든 예언적 적용의 틀을 세웠다. 1901년에 독일에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지도자였던 루이스 콘라디는 다니엘서의 '상번제'가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의미한다는 타락한 개신교의 견해를 다시 도입했다.

1888년 미니애폴리스 회의 이후의 역사적 시기 동안, 건강 사업의 지도자의 심령주의가 격화되었고, 존스와 왜그너의 메시지를 거절한 여파가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지도자들 사이에서 소원함이 지속되었다. 새 세기 초에 배도한 개신교의 학교들에서 신학 학위를 받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 지도자 W. W. 프레스콧이 "the daily"에 대한 콘라디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사탄의 망토를 걸쳤고, 언제나 그렇듯이 "승자들이

역사를 쓴다."

거룩한 천사들이 참된 역사를 기록했지만,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밀러파의 'the daily' 이해를 거부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관한 역사적 입장을 만들어,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안의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면 누구든 화이트 자매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지목한 'the daily'의 정의가 실제로는 참된 교리라고 믿도록 만들었다. 20세기 초에 W. W. 프레스콧은 The Protestant라는 간행물의 발간을 주도했다. 그 간행물의 전체 전제는 밀러의 'the daily'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으며, 그가 신학적 자격을 얻었던 배교한 개신교가 그리스도에게 사탄적 상징을 부여한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데 있었다. 그 역사에서 A. G. 대니얼스(총회장)는 화이트 자매가 'the daily'에 대한 밀러의 견해를 옳다고 직접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탄적 공격에서 프레스콧과 힘을 합쳤다.

주님께서서는 내게 1843년 도표가 그분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그 어떤 부분도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그 수치들이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임을 보여 주셨다. 또한 그분의 손이 그 위에 있어 몇몇 수치에 있는 오류를 가리셨기에,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Daily'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 연합이 있었을 때에는 거의 모두가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1844년 이후 혼란 속에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프레스콧과 대니얼스가 'the daily'의 진리에 대해 공격을 가했을 당시, 두 사람은 그 문제에 관한 소수 의견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논쟁 기간 동안 화이트 자매가 두 사람에게 준 권고는 그들이 입을 다물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는 이를 더 외교적인 표현으로, "침묵이 너희의 지혜다"와 같은 말로 전했다. 그녀는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책망하면서, 동시에 'the daily'라는 주제를 시험 문제로 삼아서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역사 수정주의자들—역사 수정주의는 가톨릭 교회의 예수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는 역사적 방법—은 그 교리를 정직하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the daily'를 시험 문제로 만들지 말라는 그녀의 발언을 이용해 왔다. 그들은 그녀의 발언을 곡해하는데, 그녀가 'the daily'의 주제를 쟁점화하지 말라고 권고할 때 언제나 "지금 이때에는" 혹은 "현 상황에서는"과 같은 단서를 붙였다는 사실을 늘 생략하기 때문이다.

여선지자인 그녀는, 자신들이 지도자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판단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파할 권한이 있다고 여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 교회에 큰 분열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격화된 논란을 수습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녀의 영향력을 통해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 사탄적 활동을 억제하셨다. 그러고서 1931년에 'the daily'의 진리를 거부하려는 새로운 공세가 전개되었고, 결국 관철되었다. 오늘날 'the daily'의 정의에 대한 참된 이해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 안에서 소수의 견해이며, 현 상황에서 'the daily'는 이제 틀림없이 시험 문제다.

다수 의견이 참된 이해를 지니고 있었을 때에는 그것은 시험이 아니었지만, 어떤 진리가 오류로 규정되면 그것은 시험이 된다. 1980년대 무렵 'Manuscript Releases'라는 제목의 원고 모음집이 출판되었을 때, 그녀가 밀러의 견해를 지지한 것만큼이나 직접적으로 프레스콧과 대니얼스의 'the daily'에 대한 견해에 반대하는 한 편의 글이 주목되었다.

우리의 경험이 이 단계에 이른 지금, 우리 회의의 중요한 모임에서 [우리에게] 숙고하라고 주어진 특별한 빛에서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게 해서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니엘스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원수가 역사하고 있었고, 또한 당신의 마음과 프레스콧 장로의 마음에도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었다. 사탄의 일은, 주께서 당신들에게 가져오라고 감동하지 않으신 일점일획 같은 것들을 끼워 넣도록 당신들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본질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대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당신들의 생각이 일점일획으로 빛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이 꾸민 일이다. 기록된 책들에서 사소한 것들을 고치는 일이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당신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침묵은 웅변이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흠 잡는 일을 그만하라. 만일 악마의 이 목적이 실행될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일이 구상 면에서 가장 놀랍다고 평가받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원수의 계획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소위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특징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안성맞춤인 묘사가 제시될 것이고, 그것은 큰 혼란을 일으킬 성품의 특질을 길러내며, 사람들 앞에 위대한 메시지를 열정을 다해 전하는 데 쓰여야 할 황금 같은 시간들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우리가 다루어 온 어떤 주제에 대한 발표들도 모두 조화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며, 그 결과 신자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는 바로 사탄이 일어나도록 계획해 둔 일이다. 곧 불일치로 과장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에스겔 28장을 읽으라. 이제 여기에는 이상한 영들이 한몫할 수 있는 큰 사역이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셔야 할 사역을 가지고 계시며, 사탄이 변장하여 우리 진영에 혼란을 가져오려고 메울 수 있는 그 틈들을 그는 완벽하게 메울 것이고, 그 모든 작은 차이점들은 확대되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께서 이 일의 짐을 Daniells 장로에게도 Prescott 장로에게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이 내게 보여졌다. 사탄의 간계가 끼어들고, 이 "Daily"가 이처럼 큰 문제로 제기되어 이 중대한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업의 전진을 가로막도록 해야 하겠는가? 어찌 되었든 그래서 안 된다. 이 주제는 끌어들이어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들어오게 될 영은 위압적이고 억누르는 것이며, 무시하는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사탄의 세력들이 활동을 시작하여 우리 진영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너희는 시험하는 문제가 아닌 의견 차이를 캐내려 할 소명이 없다. 오히려 너희의 침묵이 웅변이다. 이 문제는 내 앞에 모두 분명하게 놓여 있다. 마귀가 꾀한 대로, 이런 주제들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말려들게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의 대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제는 지체 없이 이 일을 맡아 진행해야 하며, 의견의 [차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을 감화하여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게 하고, 사소한 문제들로 우리의 일을 지체시키게 하려 할 것이며, 그러면 원수의 진영에서는 얼마나 [거기서] 기뻐하겠는가. 서로 굳게 뭉치라, 서로 굳게 뭉치라. 모든 이견을 물어 버리라. 이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모든 체력과 뇌·신경의 힘을 바쳐 이러한 이견들을 제거하고 모두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사탄이 그의 크고 성화되지 않은 지혜로 조금이라도 발판을 얻도록 허용된다면, [그는 기뻐할 것이다].

이제, 내가 당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았을 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떠난 자들에게 우리 대열에 혼란을 가져올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결과가 올지, 내 마음은 그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당신의 지혜 없음은 바로 사탄이 바라던 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요란한 선언은 성령의 감동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도된 이들의 글에서 흠을 잡는 당신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이 아니라는 말을 당신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스 장로가 백성에게 주려는 지혜라면, 결코 그에게 공식 직책을 주지 마십시오. 그는 인과관계를 따라 추론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침묵하는 것이 당신의 지혜입니다.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출판물에서 흠을 잡는 같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맡기신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이 사람들—다니엘스 장로와 프레스콧 장로—이 도시 사역에 관해 주어진 지시를 따랐다면, 진리를 확신하고 회심한 유능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을 것이며, [지금] 결코 손이 닿지 않을 지위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의 큰 가족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것처럼 풍성한 지식의 샘에서 길어 올릴 수 있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증언들이 있는데도, 왜 세상을 수년 동안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었습니까? 참된 종교는 모든 남녀를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가르친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간행되어 왔습니다: '균형 잡힌 마음', 앤드루스 장로에게 보내는 증언. 마음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어떤 짐을 맡아 지고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갈고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자신의 지혜를 높이고 이견을 끌어들이는 길을 따르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일이 있으니, 모든 목사와 모든 회의의 회장이께서 지혜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이 목소리를 높여야 했고, 여러 해 전부터 당신이 붙들었어야 했던 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 갈 시간이 우리에게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회장으로 임명된 뒤, 일을 자신의 구상대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일들을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섬기도록 받아들이셨다면, 당신의 일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필요를 덜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주 이른 때부터 지혜와 성화된 판단이 당신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빛을 주지 않으셨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일들을 성급하게

내세웠습니다.

나는 성급한 조치, 이를테면 당신을 회의의 회장으로 또 한 해 더 선출하는 것과 같은 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지기 전에는 그와 같은 성급한 결정들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금하십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이 지극히 엄숙한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당신이 이미 받았으므로, '데일리' 문제에 관해 당신이 것처럼 성급히 나서고 당신의 영향력이 그 문제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저 온 Haskell 장로가 있었고, Irwin 장로도 있으며, 내가 이름을 들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연장자들에 대한 당신의 존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숙고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든 이들을 참여시키지 않고서, 당신이 어떤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살펴봅시다. 소홀히 된 일을 눈앞에 두고, 그 일을 또 한 해 더 추진하겠다는 당신의 열심이 주님의 판단에 합한 것인지 지금 재고해야 합니다. 만일 함께 연합할 이들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또 한 해 더 계속해야 한다면, 당신과 프레스콧 장로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주께서는 당신들에게서 다른 경험의 증거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다시 회심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대니얼스 장로와 프레스콧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다시 회심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는 일곱 남자를 뽑아야 한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 판단하지 못할 만큼 눈먼 사람들이, 일의 책임을 짊어져 온 이들과 이 대회들의 회장들, 그리고 2년 넘게 이 일을 감당해 온 사람들까지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그 충동적인 결과로 수년 동안 그들 앞에 두고 강조해 온 바로 그 일—도시 사역—을 소홀히 하며, 조연을 구하기 위해 원로들에게는 전혀, 혹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백성에게 주고자 선택한 것들만을 선포한다면,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사업이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책에는 손대지 말라. 어떤 변경이 필수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가 조화와 일관성을 갖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막중한 책임이 수반되는 기별이 사람들에게 위탁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신실함을 요구하신다. 대니얼스 장로와 프레스콧 장로는 둘 다 재회심이 필요하다. 이상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던 사업과 조화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회심한 모든 이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일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위기의 시점에 이르렀다—바로 이 준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합치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시도하지 않든지. 대니얼스 장로여,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당신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해도 된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명심하라, 회의의 회장은 통치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회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지혜로운 이들과 협력하여 일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필자들의 펜에서 나온, 인쇄된 책들에 실린 글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들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권세를 덜 드러내지 않으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위기가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미개척 도시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다. 이제 이렇게 인정해야 한다. "왕권적 통치는 없다. 그리고 지금이 이 세상의 위기다. 이제 나는 구원하기도 멸하기도 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제 모든 이의 운명이 내 손에 달린 때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들려 올려지면', 내가 베푸는 구원의 은혜가, 신적 형상대로 빚어져 나와 하나가 될 모든 이들이 나의 속량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듯 일하게 될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 누구든지 원하면, 주께서 주시는 권고 아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형제들과 함께 힘을 모아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생명을 온전한 희생으로 내어주신 그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일하기를 가장 간절히 구하라. 나는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말한다. 우리 도시들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의 사역에는 고요한 거룩함이 함께하도록 하라. 우리가 ... 할 경우,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인상을 줄 수 없다.

나는 내 일기에서 옮겨 적는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 단순함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를 믿으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에게 귀를 기울인 사람들, 곧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그 잘못들을 거론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얻겠는가? 당신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미개척 밭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전 세계적인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나는 존 켈로그에 대한 표상을 받았다.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 자신이 제시하는 걸보기에 그럴듯한 논변들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진정한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견해였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럴듯한] 사상들을 내세우고 있었으므로 프레스콧 장로가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 대니얼스 장로는 이러한 견해들이 어디서나 말해질 수만 있다면 새 세상과도 같아질 것이라는 미혹에 사로잡히게 될 큰 위험[에] 있었다.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나는 대니얼스 형제와 프레스콧 형제가 그들의 경험 속에 영적(심령술적인) 외양을 띤 사상들을 엮어 놓고, 우리 백성을,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아름다운 감상들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심을 받았다. 나는 이 형제들이 진리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그들의 미혹적인 사상 속에 결함들이 있음을 보게 되리라는 사실을 펜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인 양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내가 이 문제를 보여 주심을 받았을 때, 대니얼스 장로가 'Daily'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며 나팔 소리처럼 그의 음성을 높이고 있었고, 그 뒤따라 결과들이 내게 제시되었다. 우리 백성은 혼란에 빠지고 있었다. 나는 그 결과를 보았고, 그때 나에게 이런 경고가 주어졌다. 만일 대니얼스 장로가 그 결과를 개의치 않고 이처럼 감동을 받아 자신이 하나님의 영감 아래 있다고 믿게 되면, 회의주의가 우리 진영 도처에 뿌려질 것이며, 우리는 사탄이 자기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굳어진 불신과 회의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진리를 대신하여 기이한 악의 수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20권, 17-22쪽.

제2세대의 역사는 배도의 격화를 드러낸다. 에스겔이 본 '영상의 방들'로 대표되는 심령주의는 "대니얼스 형제와 프레스콧 형제가 그들의 경험 속에 심령주의적 외양을 지닌 정서들을 짜 넣고,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아름다운 정서들로 우리 백성을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the daily'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결부된 심령주의는,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될 것의 상징이다. 그녀는 켈로그가 추진하던 범신론적 심령주의를, 프레스콧과 대니얼스가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로 규정하려는 추진과 연결지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 책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알렸는데, 이는 프레스콧과 대니얼스가 유라이어 스미스의 저서 Daniel and the Revelation을 다시 써서, 밀러가 그것을 규정했던 것과 똑같이 "the daily"를 규정했던 그의 가르침을 제거하려는 추진을 겨냥한 말이었다. 이사가 "배운 자들"이라고 지칭한 라오디게아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재림주의 안에서 배우지 못한 이들을 상대로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 그들은 역사에 대한 증언을 왜곡하여 귀가 가려운 자들과 피상적으로 공부하는 이들로 하여금 "the daily"라는 주제가 중요하지 않으며 밀러가 그 문제에서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수정 작업은, 한밤중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반복되는 때에 dirt brush man에 의해 쓸어버리도록 되어 있다고 밀러에게 보여 주어진 잡동사니의 일부이다.

우리는 다음 기사에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제2세대에 대한 고찰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들려야 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은 이러한 특수한 전개에 부합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주께서는 영적으로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신선한 만사를 확실히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안전한 길을 드러내 준다. 성령은 정신과 마음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두루마리가 세상 앞에 펼쳐지는 때가 왔다. 우리 학교의 교사들은 이제까지 가르쳐 온 것만 가르치라고 하는 말에 결코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약을 없애라. 그분의 백성이 말해야 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목회자도 속박 아래 있다고 느끼거나 사람의 잣대로 평가받아서 안 된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에 따라 성취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종들에게 말하라고 주시는 내용은 아마도 20년 전에는 현재의 진리가 아니었을지라도,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1888년 자료, 133쪽.